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중국의 ‘내권식(內卷式) 경쟁’ 억제 정책
: 중국 내 과잉경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미·중 AI 인프라 투자 현황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경제안보 연구동향

미국 신홍바이오테크 국가안보위원회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 보고서 분석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中 상무부,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증 관리 방법’ 개정 의견수렴
- 칠레 광업부, 핵심광물 국가 전략 초안 발표
- 美 상무부, ▲의료제품 ▲로보틱스 및 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232조 조사
- 트럼프 대통령, 목재·제재목 및 파생상품에 232조 관세 부과
- 中 상무부, 희토류 관련 신규 수출통제 조치 공고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Ambler Road 프로젝트 건설 승인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황지현 전문관

중국의 ‘내권식(內卷式) 경쟁’ 억제 정책: 중국 내 과잉경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01

1. ‘내권식(內卷式, involutionary) 경쟁’ 논의 경과
2. 중국 정부의 내권식 경쟁 억제 정책 추진 동향
3. 주요 산업별 내권식 경쟁 관련 동향
4. 영향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이재원 선임전문관

미-중 AI 인프라 투자 현황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09

1. AI 인프라 투자의 배경
2. 미국과 중국의 AI 인프라 관련 정책과 투자 현황
3. 시사점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최용호 전문관

미국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 보고서 분석 19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April, 2025).
Charting the Future of Biotechnology: An action plan for American security and prosperity.

1. 검토 배경
2. 「바이오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바이오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中 상무부,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증 관리 방법’ 개정 의견수렴
- 칠레 광업부, 핵심광물 국가 전략 초안 발표
- 美 상무부, ▲의료제품 ▲로보틱스 및 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232조 조사
- 트럼프 대통령, 목재·제재목 및 파생상품에 232조 관세 부과
- 中 상무부, 희토류 관련 신규 수출통제 조치 공고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Ambler Road 프로젝트 건설 승인

중국의 ‘내권식(內卷式) 경쟁’ 억제 정책 : 중국 내 과잉경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황지현 전문관

요약

- ‘내권(內卷, involution)’은 안으로 점차 말려 들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내권식 경쟁은 소모적 저가 경쟁 등의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을 의미
 - 내권식 경쟁은 2024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후, 최근 내권식 경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논의가 지속 확대
 - 내권식 경쟁의 원인은 중국의 지속적 과잉생산이 수요 부진, 수출 감소 등 경기 하방 압력과 복합 작용하면서 기업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진 점이 주요
- 중국은 과잉생산이라는 자국 내 문제를 대외 수출로 해결하는 경제 성장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비 진작, 공급 개혁 등 추진 중
 - 중국은 기존까지 과잉생산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으나, 주요 산업의 수급 불균형 확대로 기업들의 저가 출혈 경쟁이 지속 심화되자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주요 산업의 공정 시장 질서 확립 모색
- 中 정부는 내권식 경쟁 규제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가격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산업 M&A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 등 지원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등 산업 전반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금지 / 개정 가격법은 전기차 등 분야에서 나타나는 저가 출혈 경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내권식 경쟁에 대한 통제 수단을 제시
 - 주요 선도 기업의 수직적 M&A 지원, M&A 대출 정책 개선 등 산업 전반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내권식 경쟁 심화를 방지
- 중국의 내권식 경쟁 규제로 중국 내 제품 가격이 반등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과잉생산 해소 등 기대
 - 이에 우리 기업은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중장기 시장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
 - 중국의 내권식 경쟁 해소는 글로벌 과잉생산 완화를 견인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 / 궁극적으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적·질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도전 요인으로도 작용 가능

1. ‘내권식(內卷式, involutionary) 경쟁’ 논의 경과

- ‘내권(內卷, involution)’이란 안으로 점차 말려 들어가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내권식 경쟁은 원가 이하 판매 경쟁과 같은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을 의미
 - 내권식 경쟁은 2024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이후 내권식 경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및 규제 논의가 지속 확대
 - 2024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권식 경쟁 종합 관리 및 지방 정부·기업 행위 규범화’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확정하였고, 2025년 3월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 종합 관리’를 2025년 정책 기조로 설정
 - 이후 국무원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불합리한 경쟁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주문하고,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태양광 등 전략 산업의 저가 무질서 경쟁을 관리하고자 업계 지도를 강화하는 등 최근 중국 내 내권식 경쟁 규제가 확대

[중국의 내권식 경쟁 논의 경과]

일자	부처	내용
2024.7.30.	당중앙정치국	-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권식 경쟁 억제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
2024.12.12.	당중앙위원회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권식 경쟁 종합 관리 및 지방 정부와 기업 행위 규범화’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확정
2025.3.5.	국무원	-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 종합 관리’를 2025년 정책 기조로 설정
2025.7.1.	당중앙재정경제위원회	-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규제하고, 노후 생산능력 퇴출 추진할 것”을 강조
2025.7.16.	국무원	- 국무원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차 산업의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비용 조사와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
2025.7.30.	당중앙정치국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장 경쟁 질서 규범화 촉진 ▲무질서한 경쟁 억제 ▲중점 산업에 대한 생산능력 관리 강화 등을 제시

자료: KOTRA(2025.8.29.)

- 내권식 경쟁의 원인은 최근 중국 내에서 지속되어 온 과잉생산이 수요 부진, 수출 감소, 대외 불확실성 등의 경제 하방 요인과 결합되면서 기업이 저가 출혈 경쟁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 것으로 평가
 - 이에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내권식 경쟁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존에 지적된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왜곡된 보조금 정책을 억제하고자 노력 중

※ 시진핑 주석은 2025.7.1일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저가 무질서 경쟁을 정비하고 지방 정부의 왜곡적 보조금 정책을 억제하여 통일된 시장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발언

■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서방에 의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까지 중국은 ‘과잉생산은 허위 주장이며, 중국의 산업 발전은 기술혁신, 산업공급망 개선 등에 기인하였고 보조금이 아닌 진정한 능력에 기반한 것’이라 반박

- 중국은 지난해까지도 전기차,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초과 공급이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 고수

※ 중국 재정부 라오민 부부장은 2024년 7월 미국 옐런 재무장관의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 주요 원인은 보조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가 정신, 기술혁신 등이라고 반박 (Bloomberg, 2024.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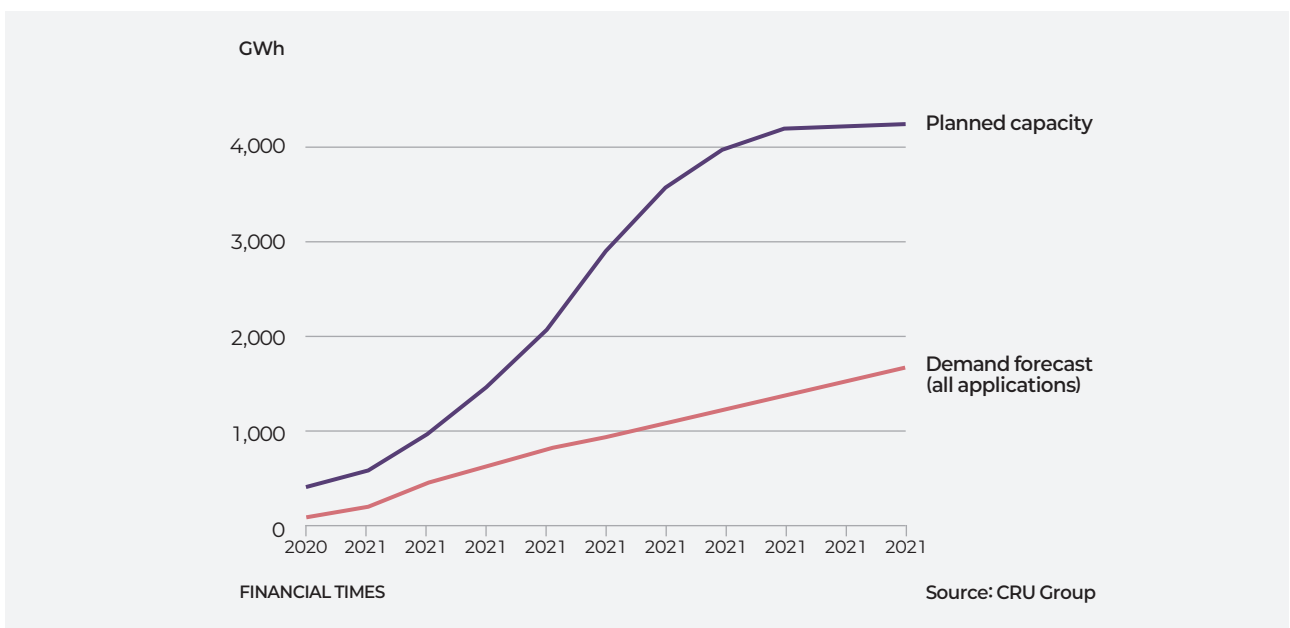
-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은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의 주요 원인으로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과잉생산은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대규모 국가 개입의 결과라고 주장
 - 특히 EU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무역 전환* 효과, EU의 시장 점유율 상실 등에 대한 대응책 모색 중

*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피해를 본 제3국이 EU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처를 전환 / EU 시장의 개방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중국의 주요 과잉생산 산업에서 EU 내 중국 및 제3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 하지만 최근 중국은 초과 공급이라는 국내 문제를 대외 수출로 떠넘기는 경제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비 진작, 공급 개혁 등 추진 중

-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확대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 심화되었고(그림 참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물량을 자국에서 소화하며 기업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가열

[중국 내 배터리 산업의 수요(적색) 및 공급(청색)]



자료: Financial Times(2023.9.3.) 재인용(원자료 : CRU Group)

2. 중국 정부의 내권식 경쟁 억제 정책 추진 동향

■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 가격법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해 내권식 경쟁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

●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정부의 내권식 경쟁 규제를 법제화하는 기반 중 하나로, 최근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괄한 개정안이 2025.6.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25.10.15일부터 시행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플랫폼 산업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들에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 문제 해소를 도모

● 가격법은 기업의 내권식 출혈 경쟁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기본법안으로, 2025.7.24일 개정 초안이 발표되어 한 달간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가격법 개정 절차 지속 추진 예정

- 개정 가격법은 전기차, 플랫폼 등 분야에서 나타나는 저가 출혈 경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원가 이하 가격 책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비용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내권식 경쟁에 대한 통제 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

※ 중국 당국은 1998년 제정된 가격법에 대해 27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여 최근 대두된 저가 덤핑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

■ 중국 정부는 내권식 경쟁을 억제하는 구체 조치로 주요 산업 분야 인수합병(M&A) 촉진 등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축소를 비롯해 감산, 공장 폐쇄 등의 직접적 개입 확대 가능성도 일부 전망

[중국의 산업 인수합병(M&A) 정책 추진 경과]

일자	부처	정책 및 주요 내용
2023.2.17.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상장 기업의 주요 자산 구조조정 규정> 개정 : 상장 기업의 거래정지 심사 면제, 인수 대상의 자산가치 기준 명확화 등
2024.4.12.	국무원	<국무원 9조> 발표 : 자본시장 관리·감독 강화, 산업공급망 내 M&A 촉진, 쉘 기업 및 허위 상장 정비 등
2024.6.19.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과학기술 혁신 및 신생 생산력 강화를 위한 8대 조치> 발표 : 산업공급망 통합 M&A 촉진, M&A 유연성 개선 등
2024.9.24.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M&A 6대 조치> 발표 : 핵심 산업 중심의 M&A 장려, 내부 구조조정 촉진 등
2025.8.5.	중국인민은행 등 6개 부처	<신형 공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침> 발표 : 선도 기업의 수직 계열화 M&A 지원, M&A 대출 정책 개선 등

자료: ARC Group(2025.6.1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은 선도 기업의 전·후방 통합(수직적 합병) 지원, M&A 대출 정책 개선 등 산업 전반적 구조조정을 통해 내권식 경쟁 심화를 방지(신형 공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침, 2025.8.5.)
 - 특히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M&A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광물 자원과 같은 국가 우선순위 산업 분야의 M&A가 확대되는 추세
 - * 중국의 M&A 거래 규모는 2025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45% 증가하여 1,700억 불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전략적 M&A 거래 급증에 기인 / 2025년 상반기 10억 불 이상의 초대형 거래 29건 중 20건이 중국 내 거래로, 이중 절반 가량이 국영 기업 주도
- 또한 자동차, 디지털 등 주요 분야의 구매보조금이 일부 성에서 중단된 바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대한 감산 정책을 첨단산업으로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 관찰
 - 최근 주행거리가 0인 ‘0km 중고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5년 6월 허난성 등 일부 도시에서 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중단
 - * 딜러 및 거래 업체들이 신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현금금 수령을 위해 등록한 후, 실제로 운전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는 관행
 - 기존 철강, 시멘트 등 전통산업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감산 및 노후 생산능력 퇴출 정책을 자동차, 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단 '주요 산업별 내권식 경쟁 관련 동향' 참조)

3. 주요 산업별 내권식 경쟁 관련 동향

- 내권식 경쟁의 주요 규제 대상 산업인 자동차 부문은 산업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원 및 관련 부처의 지도 하에 신에너지차 시장 질서 규범화 또한 진행 중
 -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5.5.31일 ‘공정 경쟁 질서 유지 및 산업 건전 발전 촉진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여 원가 이하의 저가 덤핑 억제 등을 약속
 - 공신부, 국가발개위, 시장총국 등 관련 부처는 2025.7.18일 신에너지차 산업 좌담회에서 신에너지차 산업의 불합리한 경쟁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시장 질서 확립 및 규범화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
- 배터리 산업 또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공급 과잉 및 내권식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내수 시장 포화로 인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
 - CATL 등 중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은 수직 계열화 및 LFP 배터리 중심의 저비용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 중
 - 주요 기업들은 독일, 헝가리,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중동 등 여타 지역으로도 생산 기지를 분산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전략 추진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정부 당국의 내권식 경쟁 규제 지시로 과열 경쟁이 점차 진정되면서 시장 질서가 일부 회복 중이며, 기업의 자발적 감산과 생산량 조절을 통해 수익성 확보 도모 중

- 태양광 산업은 이미 수익성 최저점을 기록하며 기업들이 출혈 경쟁 중이었으나, 업계가 공신부 등 관련 부처의 내권식 경쟁 억제 정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하면서 감산에 합의하고 생산량 가이드스를 준수하는 등 시장 가격이 점차 상승
- 공신부는 2025.7.3일 14개 태양광 업체와 좌담회를 개최하고 “저가 무질서 경쟁 억제”를 지시하였으며, Xinyi Solar, Flat Glass 등 태양광 유리 제조업체 10개 사는 2025년 7월 생산량 30% 감축에 돌입

4. 영향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내권식 경쟁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생산 감소, 투자 제약 등 중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이 지속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

- 내권식 경쟁 억제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제한해 단기 경제에 구조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일각에서는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정부의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
- 대다수 전문가는 경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내권식 경쟁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부터 추진될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수립 과정에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또한 주의 필요

■ 우리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중국 내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과잉생산이 해소되는 한편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의 내권식 경쟁 억제 정책이 실제 이행되면서 태양광 등 일부 제품 가격이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중국의 내권식 경쟁 해소는 글로벌 과잉생산 완화를 견인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시장 접근 및 중국 내 사업 환경 또한 일부 개선될 전망
- 내권식 경쟁 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적·질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에는 상당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이에 우리 기업은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중장기 시장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

-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및 초과 공급이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에 기반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바, 우리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우위 산업 확보가 긴요
- 중국 내 기업 M&A가 확대되면서 주요 산업 분야 선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 또는 협력 방안을 적절히 모색해야 할 필요

참고문헌

- 이정아, 강금윤 & 오지인. (2024).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통상리포트. (Vol. 0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5.8.29.). 중국, ‘신형 공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침’ 발표.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293.
- KOTRA. (2025.7.25.). [중국] 中, <가격법> 개정안 발표. KOTRA 해외시장뉴스.
- KOTRA. (2025.8.6.). [중국] 中, 신형 공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 KOTRA 해외시장뉴스.
- KOTRA. (2025.8.29.). 중국 공급개혁 동향 및 영향.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 김준억. (2025.6.18.). 中 일부 도시서 車 구매보조금 중단…“예산 예상보다 빨리 소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136700009>.
- 박현지. (2025.8.20.). 중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0445>.
- 정성조. (2025.6.24.). 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심의…車가격전쟁 등 겨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082000083>.
- 정은지. (2025.7.21.). 전기차 등 ‘공급 과잉’ 中정부도 우려…감산 추진시 韓도 숨통. 뉴스1.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853603>.
- 한경우. (2025.5.31.). ‘자동차판 헝다 사태’ 터지나…출혈경쟁 단속 나선 中 정부.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3179457>.
- 허욱. (2025.8.11.). 제동 걸리는 중국의 소모적인 내권식 경쟁. 이코노미조선. https://www.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8/08/2025080800023.html.
- ARC Group. (2025.6.16.). China M&A 2025: What Global Buyers and Sellers Need to Know.
- Li, Qiang. (2025.3.12.). Report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 Delivered at the Third Session of the 14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March 5, 2025.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wC. (2025.8.). PwC China M&A 2025 Mid-Year Review.
- Bloomberg. (2024.7.27.). China Defends Manufacturing Push, Says World Needs More EV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27/china-defends-manufacturing-push-says-world-needs-more-evs>.
- Financial Times. (2023.9.3.). China’s battery plant rush raises fears of global squeeze. <https://www.ft.com/content/b6038e51-7b5b-4f97-a5da-9202e71562fc>.
- PV Magazine International. (2025.7.7.). China moves to curb solar overcapacity, stabilize pricing. <https://www.pv-magazine.com/2025/07/07/china-moves-to-curb-solar-overcapacity-stabilize-pricing>.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 Review 25-9호, 2025)”,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 Review 24-18호, 2024)”,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가 있다.

미·중 AI 인프라 투자 현황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이재원 선임전문관

1. AI 인프라 투자의 배경

-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등장

-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을 처리하고 스트리밍 비디오부터 클라우드 AI 서비스까지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되는 일종의 디지털 시대의 발전소이자 항구에 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변모(Esposito, 2025)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차세대 AI 모델 구동 및 인간의 지적 능력에 필적하는 일반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장기적 목표를 추진하면서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 2025년 미국의 주요 빅테크(Meta, Alphabet, Amazon, Microsoft)는 합산 자본 지출(Capex) 대부분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집중시키고, 그 규모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5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AI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Richter, 2025)

-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배경에는 AI 모델 복잡성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데이터 처리 능력 및 전력 수요 급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

- 새롭게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는 AI 학습 및 추론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반도체 칩을 요구

- OpenAI는 초기 AI 모델인 ChatGPT 3.0 훈련 시 엔비디아 V100 칩 10,000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I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H100 칩은 그 성능이 32배에 달하고 단일 기업의 수요량만으로도 20배인 200,000개에 이를 것 추정(Gregory, 2025)

※ 단일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xAI는 2024년 콜로서스1(Colossus 1)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H100 칩 100,000개를 투입하였고 2025년 콜로서스2(Colossus 2) 시설에 H100 칩 200,000개 이상과 성능이 더욱 향상된 B100 및 B200 칩도 투입할 예정이며, AI 인프라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는 OpenAI의 경우 2025년까지 수백만개의 GPU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 또한 AI 데이터센터는 수천개의 GPU가 유휴 상태에서 최대 부화 상태로 반복 전환되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확보도 요구

- 전력 수요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2022년 17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35기가와트시로 2배 이상 증가하고(FERC 2024, p. 47), 세계적으로는 2022년 460 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1,000 테라와트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IEA 2024, p. 8)

■ 한편 미국은 AI와 같은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상황

-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I라는 선도부문(leading sector)의 확보 및 해외 공급망 의존도 감소 등을 위해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 장려

※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저르(Microsoft Azure),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가 약 70%,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화웨이(Huawei), 텐센트(Tencent)가 30%를 차지(Lehdonvirta, et al. 2025)

■ 이러한 배경에서 동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AI 인프라 관련 정책과 각국 기업의 투자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

- AI 인프라 구축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각국의 안보적 이익에 따라 전개되는바,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AI 인프라 투자 현황을 검토

2. 미국과 중국의 AI 인프라 관련 정책과 투자 현황

■ 미국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AI 정책 기조를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가치 및 규제 기반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하드웨어 공급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 확장을 추진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규제 지향적 기조를 철회하고, 규제 완화 및 물리적 인프라(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 등)의 신속한 구축 등 산업 육성 중심의 성장 가속화 전략으로 선회하는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을 발표(이현진 외 2025, p. 3-4)

※ 2025년 7월 발표된 트럼프 2기의 『AI 행동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외교안보 주도라는 3대 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 내용은 김수연(2025), 「주요국 AI 정책재편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5-16호』 참고

-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AI 행동계획의 후속조치로서 AI 인프라 구축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AI 인프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상시 전력원을 우선 활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14318호에 서명
- 또한 연방기관에 조달하는 AI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준을 삭제하고 사실과 객관성에 기반한 모델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행정명령 14319호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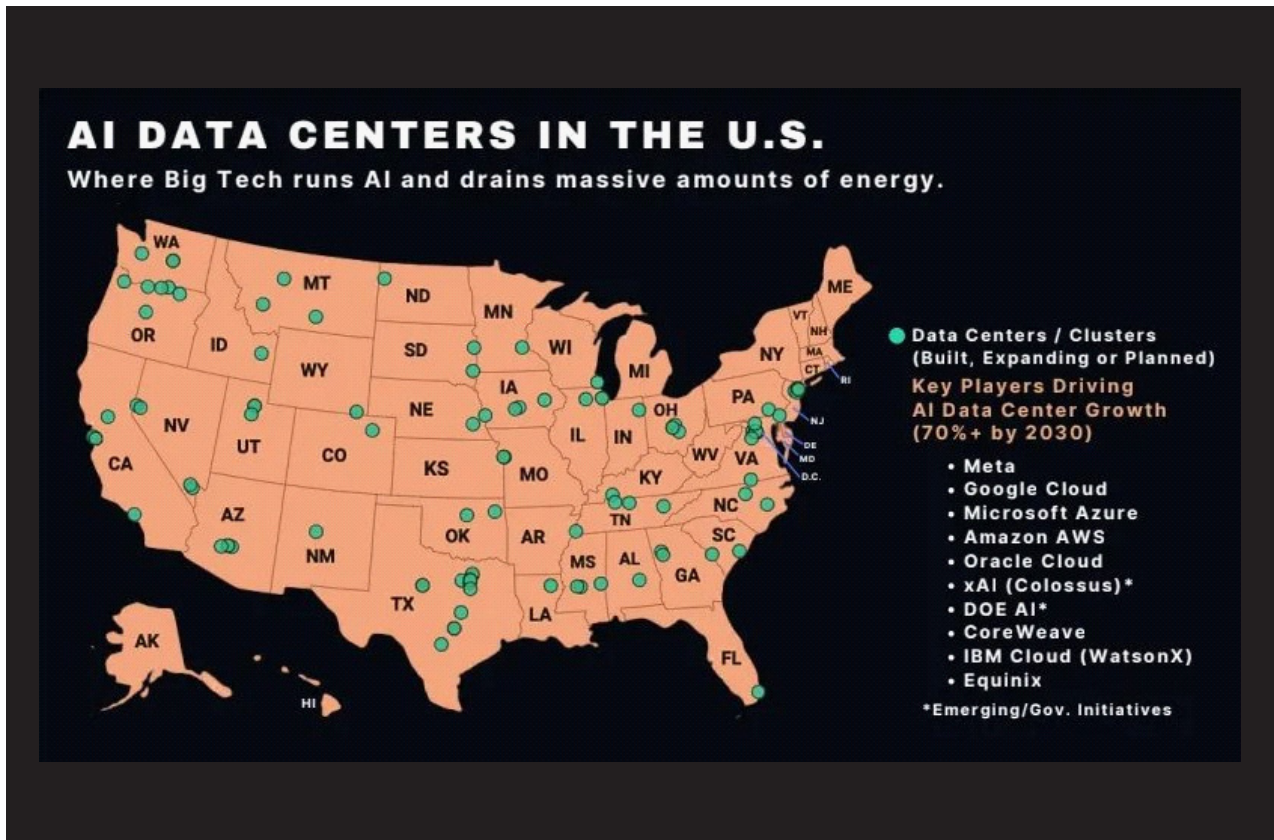
- 『AI 행동계획』에는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및 동맹의 수출통제 협력을 장려하고 미국산 AI 기술 수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14320호도 발표
 - 『AI 행동계획』은 AI 칩의 최종용도 모니터링, 반도체 장비 관련 하위 부품 통제 강화도 주문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통제 공조를 압박하기 위해 역외적용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과 미준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 활용 가능성 제기(김주현, 2025)
 - 행정명령 14320호는 동맹 등 우방국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 우위를 갖는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부문을 반도체, 보안 인프라 등 하드웨어와 묶어 하나의 AI 풀스택(full-stack)으로 수출하도록 외교와 금융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미국산 공급 강화 모색
- AI 인프라의 투자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초대형 민간 합작투자인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백악관에서 민간 기업이 발표하도록 하면서 시장에서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장려 및 경쟁 촉발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6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목표로 텍사스주 애빌린(Abilene)에 첫 번째 부지를 1GW 규모로 투자하고, 5개 신규 부지(텍사스주, 뉴멕시코주, 오하이오주 등)에 총 7.4GW에 육박하는 규모로 4,000억 달러 투자 예정(OpenAI, 2025/10/12)
 - *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OpenAI, 오라클, 소프트뱅크, MGX가 공동 설립한 합작 투자 법인이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29년까지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계획
 - 한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등장은 기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202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아마존 1,000억 달러 이상, 구글 850억 달러, 메타 650억 달러 투자를 계획(Antonio, 2025/2/16)
 - * 미국에서 정부 주도 AI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종종 언급되는 맨하탄 프로젝트(1940~1945년)는 총 20억 달러 소요(1945년 미국 GDP의 0.88% 비중), 이는 오늘날의 270억 달러에 상응하는 규모이며 2024년 미국 GDP의 0.88%는 약 2,57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미국 AI 기업의 투자 규모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Gregory, 2025)
 -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반도체 확보 전략을 보면, NVIDIA의 최신 GPU를 대량 구매하여 즉각적인 최고 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AMD와의 공급 계약으로 다각화하고 자체 맞춤형 반도체 개발(아마존 Trainium 칩, 구글 TPU 칩, 메타 MTIA 칩 등)도 추진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현황]

프로젝트 / 기업	2025년 투자(Capex)	반도체 확보 전략
	세부정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OpenAI, Softbank, Oracle, MGX)	• 1,000억 달러(2029년까지 5,000억 달러) • 텍사스주 애빌린(1 GW+); • 텍사스주 새클퍼드 카운티 (약 1.4 GW) • 뉴멕시코주 도냐나 카운티 및 중서부 부지 (예정) •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및 텍사스주 마일럼 카운티(통합 약 1.5 GW) * 글로벌 부지도 추진: UAE(1 GW), 노르웨이 (230 MW+), 영국(8,000~31,000개 GPU)	• 엔비디아 GPU 초기 공급 • AMD GPU(6 GW 규모) 도입 • Microsoft Azure 서비스 사용 지속
xAI	• 정보 미흡 •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인 콜로서스(Colossus)를 구축	• GPU 20만개 확보 이후 100만개까지 확보 계획 • 콜로서스2에 엔비디아 칩 최소 180억 달러 구매 예정* * 엔비디아가 xAI에 20억 달러를 지분 투자하는 특수 법인(SPV)을 설립하고 SPV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여 xAI가 이를 5년간 임대하는, 즉 GPU를 담보로 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 고안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 800억 달러 • 위스콘신주 데이터센터 확장(900MW 급) • Azure AI 및 OpenAI 지원을 위해 경쟁사 보다 빠른 속도로 용량 확장 추진	• 엔비디아 GPU 대량 확보 • 자체 AI칩 개발 추진
아마존 웹서비스 (Amazon Web Service, AWS)	• 1000억 달러 이상 • 조지아주 110억 달러 규모 • 펜실베이니아주 200억 달러 규모 • 오하이오주 100억 달러 규모	• 자체 개발 칩(Trainium2) 집중 • Nvidia H100칩 최대 2만개 확보 계획
구글 (Google (Alphabet))	• 850억 달러 •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 버지니아주 북부 등 착공	• 자체 개발 칩 집중(TPU v6) • Google Cloud 서비스 제공을 위한 Nvidia GPU도 확보
메타 (Meta Platforms)	• 650억 달러 (2028년까지 6,000억 달러 투자) • 루이지애나주 5 GW급 데이터센터 (하이퍼리온) 구상 • 인디애나주, 텍사스주 및 스페인, 핀란드, 싱가포르, 인도에 신규 건설 계획 (각 150 MW 이상)	• Nvidia H100 60만개 확보 계획(2024년) • 이후 120만개 Nvidia 및 AMD GPU 확보 계획(2027년)

* 자료: Antonio(2015/2/16), OpenAI(2025/10/12), Digital Watch(2025/9/9), Johnson(2025/1/30) 외 언론보도 종합

[미국의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자료: Semmi (2025)

■ 중국은 정부 주도 국가발전계획인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신형 인프라 구축 계획 및 동수서산(東數西算) 공정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미국산 첨단 GPU 확보 외 자체 개발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구축도 추진

● 중국은 1조 4천억 위안(약 1,970억 달러) 규모의 신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중반까지 중국 내 25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완공 내지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한국지능보사회진흥원 2024, p. 19, 서행아&주경원 2025, p.5)

- 또한 중국은 핵심 인프라가 밀집된 동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부에서 처리하는 동수서산(東數西算) 공정에 4,000억 위안(약 570억 달러)을 투자하며 전체 컴퓨팅 용량의 60%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징진지, 구이안, 칭양 등에 AI 및 양자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국지능보사회진흥원 2024, p. 19)

- 다만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의 데이터센터 이용률이 10~30%로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그 원인으로 정부 주도 공급 과잉이 지적된 바 있고 딥시크(Deepseek)의 출현으로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뛰어난 AI 성능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존재(Greenium, 2025/3/30)

-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하면서 기술 내재화 촉진 및 독자적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AI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글로벌 확장도 모색(조은교&심우중 2025, p.9)
 - 반도체 확보 관련,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통제 압박에 직면하여 대규모 비축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2023년 총 5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GPU를 공동 주문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2025년 초 엔비디아의 최신칩인 B200을 10억 달러 규모로 밀수한 가능성 보도(박찬 2023/8/10, Wu&Olcott 2025/7/24)
 - 그러나 중국의 대응이 점차 제재 회피를 넘어 더욱 공세적으로 변모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RTX Pro 6000D나 H20 같은 중국 수출용 칩 구매를 중단시키고 화웨이 등 자국산 제품을 우선 채택하도록 비공식 지침을 제시
-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압박 상황 속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가 비축한 엔비디아의 H20 칩을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에 판매함으로써 경쟁사 간 거래가 AI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는 현상 발생(Chen, 2025/4/28)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현황]

기업	알려진 투자 규모	반도체 확보 전략
	세부정보	
알리바바 (Alibaba)	• 3,800억 위안(약 534억 달러) 투자 계획(2026~2028년) •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 보유 • 글로벌 차원에서 브라질, 프랑스,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예정	• 2023년 50억 달러 규모 엔비디아 A800 공동 주문 • 2024년 1분기 바이트댄스로부터 H20 구매 • 자체 반도체 칩(Zhenwu) 개발 후 AI 모델 훈련에 활용
텐센트 (Tencent)	• 2024년 730억 위안(약 107억 달러) 투자 계획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충칭 등 대규모 네트워크 보유	• 2023년 50억 달러 규모 엔비디아 A800 공동 주문 • 바이트댄스로부터 약 20억 위안(약 2.8억 달러) 상당 H20 구매 • AI 인프라에 주류 국산칩을 완전히 적용했다고 발표(화웨이 어센드920 주요 공급 대상)
바이두 (Baidu)	• 2024년 상반기 42억 위안(약 6억 달러) • 양취안, 덩싱, 쉬우이 등 페타바이트급 대규모 GPU 가속 클러스터 운영	• 2023년 50억 달러 규모 엔비디아 A800 공동 주문 • 화웨이 어센드920 주요 공급 대상
바이트댄스 (ByteDance)	• 2025년 국산칩 55억 달러, 엔비디아칩 68억 달러 투자 • 미국 버지니아, 오리건 등에 대규모 시설 운영 • 아일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 운영	• 2025년 칩 예산의 최대 45%를 화웨이 등 중국 공급사에 할당할 계획

자료: FCCC(n.d.), Economic Times(2025/9/24) 등 언론보도 종합.

[중국의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자료: Strider(2025)

3. 시사점

-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 구도에서 AI라는 선도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추진
 - 미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로 데이터센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차이점 존재
 -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 경쟁사 간 투자 및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관련 투자 규모가 더욱 증폭되고, 궁극적으로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상황
- 한편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해외에 위치하거나 외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I 인프라가 자칫 자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체 인프라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외 다수의 국가들이 해외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중이 독자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경쟁 양상은 데이터센터가 미국과 중국에 더욱 집중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여타국들의 의존성을 더욱 증대시킬 위험성을 내포
 - 2025년 9월 29일 미국 산업안보국은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 등재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까지 동일한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 발표(김주현&김호영, 2025)
 -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희토류 0.1% 이상 포함 혹은 중국 희토류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의 수출 시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중국판 FDPR 시행(12월 1일)을 예고(오정미 2025, Baskaran, 2025)

■ 미-중과 달리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타국가들은 차별화된 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성 다대

- 다만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천연자원과 달리, 개별국가의 정책에 의해 그 지리적 공간이 결정되므로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각국의 전략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갈 필요성 존재
- 중동국가(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국부펀드라는 막대한 자금을 활용하고 홍해와 페르시아만이 유럽과 아시아 간 데이터 흐름의 90%를 담당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차별성으로 활용
- 그밖에 캐나다는 재생 에너지 중심의 풍부한 전력과 광대한 토지, 북유럽은 데이터센터 냉각에 유리한 기후와 지속가능성 확보,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 생태계 등을 이점으로 활용하면서 투자 정책을 추진

[AI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국가들의 특징]

	중동	캐나다	북유럽	일본
인프라 강점	• 막대한 국부펀드 및 에너지 자원 기반 자본력	• 재생에너지 중심 풍부한 전력 • 광대한 토지	• 풍부한 수력 등 청정에너지 • 냉각에 유리한 기후	• 세계적 수준의 기술 생태계
투자 정책	• 사우디 비전 2030 (1,000억 달러 투자 계획, AI 칩 공급망 확보 주력)	• AI 경쟁력 강화에 약 2조 3,800억원 투입	• 데이터센터 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 노르딕-발트해 AI 센터 설립 지원	• 2030년까지 총 98조원 지원 계획, • GDP의 0.71%를 반도체에 투자
지정학적 특징 등	• 홍해에 설치된 유럽-아시아 간 해저케이블에 대한 영향력 등 지리적 이점 확보	• NATO, Five Eyes 등 미 핵심 동맹	• NATO 신규 회원국 • 유럽의 기술 혁신 주도	• 미일동맹

* 자료: Cohen (2025)

■ AI 인프라 투자 현황은 한국에게도 자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의 필요성과 국가적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경계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 역량 등 인프라 강점 및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활용해가면서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칩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
- 한국은 HBM과 같은 첨단반도체 제조 역량 외 데이터센터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AI 인프라에 포함되는 전력 인프라 확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제약을 극복해야하고,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도 필요

참고문헌

- Antonio. 2025. How are major tech companies planning to spend on AI. Foreign Affairs Forum.
- Baskaran, Gracelin. 2025. China's New Rare Earth and Magnet Restrictions Threaten U.S. Defense Supply Chains. CSIS.
- Cohen, Jared. 2025. The Next AI Debate is About Geopolitics. Foreign Policy.
- Chen, Wency. 2025. Tencent, Alibaba buy Nvidia GPUs from ByteDance stockpile, report says. SCMP.
- Digital Watch. 2025. Meta to spend \$600 billion on US data centres by 2028. 2025/9/9.
- Economic Times(2025/9/24). Alibaba to open new data centres; unveils most powerful AI model.
- Esposito, Mark. 2025. AI geopolitics and data centres in the age of technological rivalry. 2025/7/24. World Economic Forum.
- FERC(Federal Energy Regulation Commission). 2024. Summer Energy Market and Electric Reliability Assessment.
- FCCC(Flanders-China Chamber of Commerce. (n.d.). Major Chinese Tech Firms Double AI Investment in First Half of 2024.
- Gregory, Allen. 2025. "American AI investment boom is bigger than the Manhattan Project in both absolute terms and in relative to GDP terms," The AI Policy Podcast: Is China Done with Nvidia's AI Chips?, 2025/9/24. CSIS.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4. Electricity 2024: Analysis and forecast to 2026.
- IntuitionLas.ai. 2025. OpenAI's Stargate Project: A Guide to the AI Infrastructure. 2025/10/8.
- Johnson, O'Ryan. 2025. AWS, Meta, Microsoft, Nvidia And Oracle: Five Data Center Deals Worth \$676B. 2025/1/30. CRN.com.
- Lehdonvirta, V., Wú, B., & Hawkins, Z. (2025). Weaponised interdependence in a bipolar world: how economic forces and security interests shape the global reach of US and Chinese cloud data centre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2(5), 1442-1467. <https://doi.org/10.1080/09692290.2025.2489077>
- OpeanAI. 2025. OpenAI, Oracle, and SoftBank expand Stargate with five new AI data. 2025/9/23.

- Richter, Felix. 2025. Chart: Tech's AI-Fueled Spending Surge. 2025/8/28. Statista.
- Semmi, W. 2025. New map and research expose disturbing side effect of AI industry boom: 'There are going to be challenges'. 2025/9/21. The Cool Down(TCD).
- Strider. 2025. China's AI Infrastructure Surge: How PRC Data Centers and AI Models Bridge Military Ambitions and Global Connections.
- Wu, Zijing & Eleanor Olcott. 2025. Nvidia AI chips worth \$1bn smuggled to China after Trump export controls. 2025/7/24. Financial Times
- White House. 2025. AI Action Plan.
- 김주현. 2025. 미 백악관,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AI 수출통제 실행계획 발표. 무역안보 24. 무역안보관리원.
- 김주현, 김호영. 2025. 미 상무부, 50% 지분 규칙 도입으로 계열사 수출통제 확대. 무역안보 24. 무역안보관리원.
- 박찬. 2023. 중국 빅테크, GPU 비축 경쟁... 2년간 6조 6000억 투입: 수출규제 확대 소문에 앞다퉀 'A800' 주문. 2023/8/10. AI Times.
- 서행아&주경원. 2025. 글로벌 AI 패권 경쟁: 중국 동향과 시사점. KISTEP 브리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오정미. 2025. 중국 상무부, 희토류 품목·기술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실시. 무역안보24. 무역안보관리원.
- 이현진, 이대은, 박보영. 2025. 트럼프 2기 AI 정책 변화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은교, 심우중. 2025.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 Issue Paper. 산업연구원.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미국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 보고서* 분석

최용호 전문관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April, 2025). *Charting the Future of Biotechnology: An action plan for American security and prosperity.*

1. 검토 배경

- 미국 의회 자문기구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NSCEB)*, 바이오 분야 정책 권고를 담은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이하, 「바이오 보고서」) 발표(2025년 4월)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NSCEB개요

- (설립)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의 초당적 합의로 설립
- (임무) ▲바이오 기술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 ▲정책 권고안의 입법화 지원
- (조직 구성) ▲의회 의원 4명 ▲민간 전문가 7명
 - (의회) Todd Young(상원, 공화), Alex Padilla(상원, 민주), Stephanie Bice(하원, 공화), Ro Khanna(하원, 민주)
 - (민간) Michelle Roza(분자생물학), Eric Schmidt(컴퓨터공학, 前 구글 CEO) 등
- NSCEB는 「바이오 보고서」를 美 의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 현재 동 보고서의 권고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지원 활동 전개 중
 - 동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3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에 밀릴 위험이 있으며, 이는 미국에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바이오 분야를 전략적으로 촉진·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언 제시 / 궁극적으로 최소 150억 달러의 연방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미국은 그간 바이오는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광물 등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분야라고 지속 강조 / 동 보고서는 바이오 쟁점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정치인·전문가의 인식을 포괄적·종합적으로 보여주는바, 검토 필요

2. 「바이오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바이오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바이오 분야 우위 확보 필요성

- (기술 융·복합과 바이오 혁명) 바이오 빅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비약적으로 단축*

* (AlphaFold의 사례) 단백질 구조 예측은 50년간 풀리지 않은 생명과학의 최대 난제였으나, 구글 DeepMind의 인공지능 모델 AlphaFold는 “Protein Data Bank”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원자 수준의 정확도로 단기간에 정확히 예측

- AI 모델을 통해 원하는 생물학적 결과를 컴퓨터처럼 설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의 파급효과) 생명을 설계하는 바이오 기술은 산업·안보·경제를 동시에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바이오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면 미국은 아래와 같은 긍정적 미래 기대 가능

- (국방) 합성생물학 기반 병참 혁신* 등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 지속

* 전투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직접 생산하여 보급망 단축 및 병참 의존도 감소

- (공급망) 생명공학적 효소를 통한 자원·광물 추출 등을 통해 공급망 자립 강화

- (식량) 기후적응형 가축, 비료혁신 등을 통해 미국 식량 생산에 혁명적 변화 기대

- (보건·의료) 바이오 치료 혁신, 의약품 공급망 자립,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혁신 기대

- (컴퓨팅) DNA 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으로 기존 컴퓨팅의 한계 극복

■ 중국 바이오 굴기의 위협

- (중국의 바이오 굴기) 중국은 국가주도형 바이오 전략을 추진, ▲막대한 자금 투입 ▲기술탈취 ▲데이터 통제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산업 역량 수준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

- (중국의 위협) 중국은 바이오 기술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군연계 전략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존재

- (군사안보) 유전공학 기반 신체 강화 군인, 인프라 파괴형 미생물 등 활용 가능성 존재

- (식량안보) 식물병원체를 조작하여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식량 공급망 교란 가능

- (의약품 공급망)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바, 중국의 의약품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은 위협

* 미국인이 사용하는 일상 의약품(이부프로펜, 하이드로코르티손,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최대 90%를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

■ 미국의 現 상황 진단

- (미국의 강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생태계 보유
 - 미국은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보유 / 아울러, AI·반도체·양자 등과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 연구 생태계도 보유
- (미국의 약점)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전략 부재 ▲상업화 및 제조역량 약화 ▲바이오 장비·효소·시약·원료 등 공급망의 지정학적 종속 ▲우방국과의 바이오 협력 전략 부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동력 상실 등은 약점

■ 정책 제언: 바이오 분야의 우위 확보를 위한 촉진(promote)·보호(protect) 전략

※ 「바이오 보고서」는 의회에 제시하는 6대 영역과 49가지 세부 권고안 제시 / 여기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① (국가 수준의 바이오 기술 우선순위 지정) 백악관 산하에 국가바이오기술조정실(National Bi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신설하여 ▲국가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 ▲부처·기관 간 기능 조율 등 역할 수행
- ② (민간부문의 역량을 동원하여 미국 제품의 생산 확대 및 기술 상용화 촉진) ▲규제 간소화 ▲민간 투자 유치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 ▲핵심 바이오 인프라·데이터 보호 ▲중국 위협 대응 및 공급망 관리 등
 - (투자 유치) 국가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민간 운영 독립 투자펀드 설립
 - (제조 인프라 구축) 에너지부 및 상무부에 상용화 前 단계 바이오 제품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 (인프라·데이터 보호) 국토안보부가 바이오 인프라·데이터를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 (中 위협 대응) ▲공기업의 해외 공급망 취약성 공시 의무화 ▲주요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바이오 공급업체와의 거래 금지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의 덤핑 및 과잉생산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
- ③ (국방용 바이오 기술의 강점 극대화) ▲국방에 필수적인 바이오 제품 제조 강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바이오 기술 활용 방지 등
 - (中 위협 대응) ▲美 자본이 中 기술 발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외투자심사 강화 ▲군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국의 바이오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검토
- ④ (경쟁자를 앞서는 혁신 우위 확보)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감한 바이오 데이터 보호 ▲연구 생태계 조성 등

- (데이터 구축 및 보호) 바이오 데이터가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데이터 웹(Web of Biological Data) 구축 /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바이오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 강화

⑤ (미래 바이오 인재 양성) 직무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⑥ (동맹·우방국의 역량 동원) ▲국제 바이오 규범 및 표준 수립을 위한 협력 ▲바이오 데이터 공유 협력 ▲다자 바이오 수출통제 조화 협력 강화 등

- (국가별 비교우위) 덴마크(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독일(바이오 에너지), 일본(재생의학 및 바이오 제조), 한국(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 영국(데이터 기반 생물학) 등 활용

3. 「바이오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총평) 「바이오 보고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전반적인 공감대와 바이오 전략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

● 미국의 주요 행위자들은 바이오 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을 강조

- 대응이 늦었던 반도체 및 통신장비 분야를 교훈 삼아, 아직 기술 혁명의 전환점에 도달하지 않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3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바이오 보고서」는 ▲자국 중심의 기술·산업 육성(제조업 리쇼어링 및 공급망 재편 등)과 ▲중국의 추격에 대한 견제(수출통제, 투자심사, 데이터 디커플링 등)라는 美 바이오 전략의 방향성 제시

- 미국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는 기술 및 자본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며, 반대로 제조역량 약화, 바이오 원료의 공급망 의존성 등 취약성은 보완하는 육성전략 구상

● 미국은 이러한 구상을 점차 실행에 옮기고 있는바,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광물, 조선 등과 함께 바이오 분야도 경제안보 쟁점으로 부상 본격화

■ (美 의회) 국가 차원의 바이오 촉진·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 형성 / 다만, 동 보고서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입법화로 이어질지는 지속 관찰 필요

● 정당 양극화가 심해지는 미국 국내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NSCEB는 초당적 합의로 출범하여 위원회 전원 합의에 기초한 「바이오 보고서」 공개

● 다만, 동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상당수는 입법을 필요로 하는바(특히,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분야), 美 의회가 이런 정책 구상을 실제 입법으로 만들어내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

-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미국 바이오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對中 견제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논의 지속 전개 중

-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상원이 특정 외국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계약 및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는 점 주목(2025년 10월 10일)

■ (美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도는 ‘자국 우선주의’ 기치하에 현재까지 바이오 제조 리쇼어링 등 육성전략에 초점을 맞춘 바이오 정책 추진 중 / 중국 견제 구상도 행동으로 옮길지 관건

- (육성)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 정책 추진 중 / 다만, 「바이오 보고서」의 구상과는 달리 관세를 활용한 리쇼어링 유도(미국 내 투자 시 관세 면제) 정책도 예고
- (견제) 최근 일부 언론은 행정부가 중국에서 개발된 실험용 치료제 수입 차단 등 중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준비중이라고 보도(9.10, NYT)

-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일관적인 對中 견제 조치의 일환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환인지는 지속 관찰 필요*

*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타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對中 견제 정책도 중국과의 거래적 관점 및 국내 정치적 고려(지지층의 틱톡 사용, 틱톡 인수 美 기업의 이익)의 맥락에서 실시

-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바이오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 중 어떤 정책을 선택하여 추진할지 지속 관찰 필요

■ (산업 영향) 바이오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지정학적 블록화 추세의 가속화 예상 /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약가 인하 정책 등은 세계 제약회사들의 기존 사업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미국 바이오 정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반사이익 극대화 ▲첨단 기술 플랫폼 확보 및 자체 기술력 제고 ▲바이오 제조 공급망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활용하여 우방국간 전략적 협력 기회 모색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불확실한 환경 대응 필요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이승주 편. 2020,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경제안보리뷰, 23-7호), “틱톡 규제 동향 분석: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경제안보리뷰 23-16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9.17.~2025.10.8.)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상무부,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증 관리 방법’ 개정 의견수렴 개시(9.16)

※ 9.16일 개정 의견수렴안 발표 / 10.16일까지 의견수렴 예정

● (개정 내용) ▲허가증 발급기관 명시 ▲허가증 사용 관련 내용 구체화

- (발급기관) ▲상무부 허가증사무국 ▲각 지방 성·시 상무 담당 부서

- (허가증 사용) 수출허가증 분할 발급* 등 탄력적 허가 관리 규정 신설

* 통상 하나의 허가증으로 1차례 통관 신청이 가능하나, 수출업체가 동일 품목 수출시 신청서 한 개로 최대 12개의 허가증 발급 가능

● (평가)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제도 시행 관련 실무적인 정책 조정으로 평가 / 향후 신규 제도 도입과 관련한 변경사항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칠레 광업부, 핵심광물 국가 전략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절차 개시(9.22)

● (배경)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핵심광물 관련 국제 수요 증가 대응 목적

※ 칠레는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GDP 중 광업 비중은 11.7%, 광업의 전체 수출액 비중은 57%

● (주요 내용) ▲생산 광물 다각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내 역할 강화

- (매장 광종 분류) 칠레 내 매장 광종을 지질학적·산업적·전략적 기준에 따라 구분(A·B·C 그룹*)하고 향후 탐사·개발 등 정책 결정에 활용

* (A그룹) 칠레가 선도적 지위를 보유한 광물(구리, 리튬, 몰리브덴, 레늄), (B그룹) 잠재적 점유율 확보 가능성 보유 광물(코발트, 희토류, 안티몬, 셀레늄, 텔루륨), (C그룹) 전략적 잠재력 보유 광물(금, 은, 철, 붕소, 아이오딘)

- (공급망 내 역할 강화) ▲국제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 양자·다자 협정 이행 촉진 등 핵심광물 외교 확대

● (전망) 現 보리치 행정부 임기 내 성과 달성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전망 / 의견수렴 기간(9.22-10.21.)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략 수립 및 발표 예정

■ 美 상무부, ▲의료제품, ▲로보틱스 및 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9.2) 및 의견수렴 공고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9.24)

● (주요 내용)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의료제품*, 로봇·산업기계**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9.26로부터 21일 이후까지 의견수렴 예정)

* 주사기, 봉합사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및 장갑·마스크 등

** 컴퓨터 제어 기계시스템, 스탬핑 및 프레스 기계 등 제조 공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등

● (평가) 232조에 근거한 美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조치 확대 추세

- 일각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 행정부의 대비 조치로 평가
- 단, 232조 기반 관세 조치는 시행 이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바, 관련 정책 동향 지속 관찰 필요
- 특히, 로봇·첨단 기계에 관세 부과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의 현지 공장 설비 구축 비용 상승 가능성 제기

■ Trump 대통령, 목재(timber)·제재목(lumber) 및 파생상품에 232조 관세 부과(10.14 발효) 포고문 서명(9.29)

● (주요 내용) ▲연질 목재 및 제재목(10%) ▲특정 목재 가구(25%)에 관세 부과

- 단,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영국에 10%, EU·일본에 15%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관세 부과

● (평가) 미국의 품목별 관세(의약품, 트럭, 영화 등) 부과 위협 확대에 따라, 기존 무역 합의(미·영 등) 관련 불확실성 확대(Politico, 9.30)

-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10%로 인하하였으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는 상금 미확보 / 의약품 관세 상한 확보 여부도 불확실

■ 상무부, 희토류 관련 신규 수출통제 조치 공고(2025년 제61호 및 제62호 / 10.9)

● (주요 내용) ▲既 수출통제 대상 중희토류 7종* 관련 통제범위 확대(역외 수출통제 적용 등)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제한 확대

*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에 대해 25.4월 수출통제 실시

- (역외 수출통제) 中 희토류 기술 활용 및 中産 중희토류(7종)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품목의 제3국 수출시에도 中 상무부의 허가증 취득 필요

※ 수출허가 대상은 ①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통합·혼합(0.1% 이상) 품목 ②중국에서 유래한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자성체 제조, 재활용 기술 활용 품목 ③중국 내 생산 희토류 품목

- (기술 수출제한)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자성재료 제조, 재활용 관련 기술 및 그 매체*의 수출시 수출허가증 취득 필요

* 기술은 관련 생산라인 조립, 시운행, 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등 기술 포함 / 매체에는 설계도, 공정규격, 공정 변수, 가공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기술 관련 자료 포함

● (평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미중 협상 레버리지 마련

- 중국의 희토류 소재나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3국을 통한 미국의 우회 수입 차단
- 통제 품목의 최종용도가 반도체 분야일 경우 건별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수단 확보 측면

■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Ambler Road 프로젝트 건설 승인 행정명령 서명(10.6)

● (주요 내용) ▲알래스카 도로 건설 프로젝트 승인 ▲관련 기업 지분 인수

- 알래스카 내 광물(구리, 코발트, 금, 아연 등) 개발 지원을 위해 Ambler 광산지대로 이어지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약 340km) 승인
- 관련하여 美 연방정부는 Ambler 광산지대 내 광물 탐사 및 채굴 지원을 위해 캐나다 광산개발 기업(Trilogy Metals Inc.) 지분 10% 인수 발표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9.16.	[수출통제] 상무부,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증 관리 방법' 개정 의견수렴* 발표 : 10.16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 예정 * (주요 내용) ▲허가증 발급 근거 및 담당 부처 명확화 ▲수입 및 수출 분리 관리 등
	9.17.	[반도체] Financial Times, 사이버공간관리국이 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기업에 Nvidia 칩 구매 금지 요구 보도
	9.18.	[반독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중단
	9.18.	[광물] 러시아산 구리·니켈을 구매하는 국유기업에 혜택을 주던 비공식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 확보 목적으로 풀이
	9.22.	[철강]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 「철강산업 안정적 성장 업무방안」 발표 : ▲관리 강화 ▲공급 최적화 ▲전환 촉진 ▲소비 확대 ▲협력 증진 등 5개 분야 10가지 조치 제시
	9.23.	[WTO] 리창 국무원 총리,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WTO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
	9.25.	[미중관계] 상무부, 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 : ▲3개 美 업체(대만 관련 무기 판매 기업)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추가 ▲3개 美 업체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9.28.	[통신] 시장총국, 美 전자 테스트 장비 기업 Keysight의 英 통신 테스트 및 측정 기업 Spirent 지분 인수 조건부 승인 결정 발표
	9.29.	[미중관계] 상무부, 美 상무부의 수출통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강력 비판 * 수출통제 적용대상을 Entity List 등에 등재된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확대
미국	9.29.	[항만] 해운법 관련 규정 개정 : 中 선박이나 운영사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를 부과하거나 지지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장치 마련
	9.10.	[경제안보] Young Kim 하원 동아태소위원회(공화/캘리포니아), 국무부 내 경제안보 기능 강화 조직 개편 법안(H.R.5248) 발의 : (주요 내용) 기존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경제차관'으로 개편 및 권한 확대 등
	9.16.	[제재] 행정부, 이란 금융 네트워크 신규 제재 및 이란 차바하르 항구 제재 면제 철회 등 발표
	9.16.	[관세] 하원 공화당, Trump 대통령의 IEEPA 관세 종료 결의안 신속 표결 자동 차단 결의안(H.Res.707) 통과
	9.16.	[틱톡] Trump 대통령, TikTok 금지 유예기간 12.16일까지 연장

국가	일자	내용
미국	9.16.	[관세] 상의 등 무역단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 품목 확대 재검토 촉구 : 반박 기회 제공 등 절차 개선 촉구
	9.17.	[관세] Tim Kaine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 및 Rand Paul 상원의원(공화/켄터키),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35%) 철폐 결의안 발의
	9.17.	[관세] Haley Stevens 하원의원(민주/미시간), 식료품 관세 금지 법안(No Tariffs on Groceries Act) 발의 : 식료품에 관세 부과 시 의회 승인 의무화
	9.17.	[핵심광물] 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및 Catherine Cortez Masto(민주/네바다) 상원의원, 美 광물 안보 회복 법안 발의 : (주요 내용) USTR 주도 우호국 연합 결성 및 핵심광물 무관세 무역 등
	9.18.	[기술] 美-英 “기술 번영 협정(Tech Prosperity Deal)” 체결 : ▲AI ▲민간원자력 ▲양자컴퓨팅 등 협력 추진
	9.18.	[관세] David McCormick(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및 Catherine Cortez Masto(민주/네바다) 상원의원, 「유해한 중국 투자로부터의 USMCA 보호 법안」 발의
	9.19.	[미중관계] Trump 대통령, Truth Social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9.19) 결과 발표 : 무역, 펜타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TikTok 협상 승인 등 진전
	9.19.	[비자] Trump 대통령, 골드카드 이민 비자 신설 행정명령 및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령 서명 : ▲개인(100만 달러), 법인(200만 달러) 기부 시 신속 심사를 통해 이민 비자를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 신설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
	9.19.	[예산] 상원,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부결 : 2025 회계연도 종료(9.30) 前 양당 간 타협 전망 매우 불투명
	9.19.	[비자] Tom Suozzi 하원의원(민주/뉴욕), 한국인의 호주 전문직 비자 쿼터 미사용분 활용 법안(H.R.5534) 재발의
	9.20.	[철강] Wall Street Journal, 트럼프 행정부의 US스틸 공장 가동정지 저지 보도
	9.20.	[희토류] 포스코인터내셔널, 美 리엘리먼트社와 협력하여 미국 내 희토류 통합 생산단지 설립 계획
	9.22.	[틱톡] Leavitt 백악관 대변인, 금주 중 Trump 대통령의 틱톡 관련 합의안 서명 예고
	9.23.	[비자] 국토안보부 이민국, H-1B 비자 가중치 선발제 잠정규정 공개 : (주요 내용) 임금수준 별 추첨 기회 차등 부여
	9.24.	[관세] 정부, 對EU 관세 인하 관련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 : ▲자동차 관세 25%→15% 인하(8.1.부터 소급 적용)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 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 불가한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9.1.부터 적용) 등
	9.24.	[관세] Washington Post, 일부 월가 헤지펀드·투자회사들, IEEPA 관세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효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업자들의 관세 환급 청구권 매입 중 이라 보도
	9.24.	[국가안보] ▲의료제품 ▲로보틱스 및 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관련 의견수렴 공고
	9.25.	[관세] Trump 대통령, 일본이 5천5백억 불, 한국이 3천5백 불을 선불로(up front) 투자 예정이라 언급

국가	일자	내용
미국	9.25.	[관세] Trump 대통령, ▲의약품(100%) ▲주방 캐비닛(50%)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50%) ▲천을 씌운 가구(30%) ▲대형 트럭(25%) 등에 대해 신규 관세 부과(10.1 발효) 발표
	9.25.	[관세] EU-미국 무역 합의 및 EU-미국 공동성명에 따른 對EU 관세율 인하 조치 연방관보 게재 : ▲상호관세 15%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8.1.자 소급 적용)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시 최대 15% 상한 적용 ▲일부 품목 최혜국 관세 적용 약속
	9.26.	[틱톡] Trump 대통령,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9.26.	[반도체] Wall Street Journal, Trump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량만큼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 보도
	9.26.	[관세] 백악관, 일본과 EU에는 의약품 관세 부담 경감 조치 적용 언급 : 일본과 EU의 관세 부담률 상한 15% 적용 전망
	9.29.	[관세] Trump 대통령, 영화 및 가구 대상 관세 부과 계획 발표
	9.29.	[관세] Trump 대통령, 목재(timber)·제재목(lumber) 및 파생상품에 232조 관세 부과 (10.14 발효) 포고문 서명 : ▲연질 목재 및 제재목에 10% 관세 부과 ▲천 등을 씌운 특정 목재 가구 및 주방 수납장·부품에 각각 25% 관세 부과
	9.29.	[비자] Chuck Grassley 상원 법사위 위원장(공화/아이오와) 및 Dick Durbin 간사(민주/일리노이), H-1B 및 L-1 비자 개혁 법안*(S.2928) 발의 * (주요 내용) H-1B 및 L-1 비자의 임금·고용 기준 등을 강화하도록 이민국적법(INA) 개정
	9.30.	[의약품] Trump 대통령, 화이자(Pfizer)와 ▲메디케이드 대상인 거의 모든 처방약의 MFN 가격 제공 ▲연방정부 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일부 의약품 판매 ▲700억 불 규모 투자 등 합의 발표
	9.30.	[예산] 백악관, 정부 폐쇄(10.1) 공식 선언
	9.30.	[수출통제] 상무부 BIS, 신규 수출통제 강화 조치 시행 : 「특정 지정된 기관의 계열사까지 최종사용자 통제 확대」 임시 최종 규칙 발표
	10.1.	[제재] 행정부, UN 스냅백 조치*(9.27) 지원 취지 對이란 추가 제재 발표 * 對이란 제재 복원 조치
	10.2.	[관세] Trump 대통령, 관세 수입의 ▲국가부채 상환 ▲미국인 환급(약 1~2천 불 수준) 방안 언급
	10.6.	[광물] Trump 대통령, 알래스카 Ambler Road 프로젝트 건설 승인 행정명령 서명 : 美 연방정부, Ambler 광산지대 내 광물 탐사 및 채굴 지원을 위해 알래스카 광산개발 기업 Trilogy Metals Inc. 지분 10% 인수 발 표
일본	10.6.	[관세] Inside US Trade, IEEPA 관세 소송 박빙 전망 : 법리상 원고 승소 가능성 근소 우세 / 여타 조치를 통한 관세 재부과 가능성 등 美 전문가 전망 보도
	10.6.	[관세] Trump 대통령, Truth Social을 통해 ‘25.11.1.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
	9.12.	[AI] 정부, 제1차 AI전략회의 개최
일본	9.12.	[반도체] 경산성, 美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에 최대 5,360억엔 지원 계획 발표
	9.14.	[해저케이블] Nikkei, 정부의 해저케이블의 경제안보상 리스크 조사 방침 보도

국가	일자	내용
일본	9.15.	[배터리] 日-EU 경제단체, 배터리 공급망 강화 협력 MOU 서명 : ▲원재료의 재이용을 위한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산업의 인재육성 도모를 위한 日-EU 기업 간 교류 촉진 등 포함
	9.15.	[수소] 日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자동차, 간사이전력 및 獨 다임러트럭, 함부르크 자유항 창고건축조합,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 체결
	9.17.	[조선] 정부, 2035년 조선 건조량 2배 목표 제시 : 건조량을 현재의 약 2배인 1,800만 톤으로 향상 목표
	9.17.	[구리] Nikkei, 미쓰비시상사-미쓰이물산 간 칠레 구리광산 공동조업 합의 보도
	9.28.	[관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선 후보, 일미 관세합의 재교섭 가능성 언급
EU	9.16.	[정책] 집행위, درا기(Draghi) 보고서 1주년 고위급 회의 개최 : 지난 1년간 EU 경제정책 진전 상황 평가
	9.16.	[공동성명] 韓-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공동성명 발표 : 양 관할권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흐름의 포괄적 영역 마련
	9.17.	[제재] 집행위, 對이스라엘 무역 중단 및 제재 조치 제안
	9.19.	[제재] 제19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추진 계획 발표
	9.23.	[FTA] 집행위, EU-인도네시아 FTA 협상 최종 타결 발표 : EU-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9.29.	[반도체] EU 반도체연합, EU 반도체법 개정 촉구 선언문 서명 : 반도체법 2.0에 대한 비전 등 제시
	10.1.	[철강] 집행위, 외국산 철강 수입 할당량 50% 축소 및 할당량 초과분에 50% 관세 부과 계획
	10.7.	[철강] 집행위, 철광 수입 무관세 쿼터 2024년 대비 47% 축소 및 쿼터 초과분 관세율을 두배로 인상(25%→50%) 계획 제안
독일	10.8.	[AI] 집행위, 유럽 산업 및 과학 분야 AI 활용 가속화를 위한 AI 전략 2건 발표 : Apply AI Strategy 및 AI in Science Strategy
	10.2.	[국제협력] 러시아-이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발효
	9.19.	[USMCA] 정부, USMCA 재검토 진행을 위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네덜란드	9.29.	[반도체] 경제부 장관, 유럽 반도체 연합* 공동선언문 EU 집행위에 제출 * 2025.3월 네 정부 주도 하 출범 / 공동선언문 발표 시 EU 27개국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참여
독일	9.25.	[경제] 독일 5대 경제연구소, 독일 경제진단 공동 발표(9.25) : 2025년 경제성장률 0.2%, 2026년 경제성장률 1.3% 등 제시
	9.27.	[공급망]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공급망 실사법 사실상 폐지 지시 : 연례 공급망 실사 보고서 의무 전면 폐지 및 벌금 규정 일부 삭제 / 향후 공급망실사법을 EU 공급망 지침(CSDDD)으로 대체 예정
	10.1.	[수소] 연방내각, 수소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수소가속화법 초안 승인
프랑스	10.1.	[관세] 마크롱 대통령, EU 집행위에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부문별 관세 부과 촉구
호주	10.1.	[핵심광물] 앨버니지 총리, 비축 핵심광물 동맹국에 공급 추진 : 현금 투자하는 동맹국에 전략적 비축량의 일정 지분을 주는 방안 영국·캐나다 등에 제안

국가	일자	내용
튀르키예	9.22.	[관세] 무역부, 미국산 자동차(60%), 주류(70%), 담배(30%), 화장품(30%) 등 일부 제품 대상 대미 보복관세 전면 해제 발표
멕시코	9.17.	[USMCA] 정부, USMCA 재검토 진행을 위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9.25.	[관세] 상무부,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안에 대한 조사 개시 발표
베트남	9.18.	[투자]公安부, 투자자 대상 엄격 심사 추진 :公安부 시행령 초안에 따라公安부에 에너지, 통신, 건설 등 프로젝트 심사 권한 부여
브라질	9.30.	[반덤핑]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무역구제국, 후판(Heavy plates) 반덤핑 일몰재심 판정 결과 관보 게재 : 한국·중국·우크라이나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등 결정
칠레	9.24.	[항만] 산안토니오 항만공사(EPSPA), 산안토니오 외항 확장 프로젝트 사전자격심사(PQ) 2차 결과 발표 : 현대건설(한국) 포함
	9.22.	[핵심광물] 광업부, 핵심광물 국가 전략 초안 발표 : ▲핵심광물의 생산 및 개발 광물 다각화 ▲핵심광물의 책임 있는 채굴 ▲핵심광물 기반 기회 창출 ▲국제적 참여 및 핵심광물 외교 등 5가지 핵심축 마련
	9.25.	[RCEP]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추진 공식화
인도	9.16.	[무역] 인도-미국 차기 무역 협상을 위한 예비 협상 개최
	9.20.	[조선] 모디 총리, 조선·해운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 발표 : ▲전국 항만 현대화 및 물류 효율화 ▲친환경·디지털 기반 차세대 선박 건조 ▲내수·수출용 상업 조선소 신설 등 48개 프로젝트(총 규모 약 64억 불) 발표
	10.1.	[무역협정]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와의 무역 및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인도네시아	9.11.	[조선] 노동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 인력 양성 ODA 관련 MOU 체결
	9.15.	[경제] 정부, '2025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8+4+5 프로그램)' 발표 : ▲8대 2025 경제 가속화 프로그램 ▲4대 2026 후속 프로그램 ▲5대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 총 16조 2,300억 루피아 규모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
	9.25.	[CEPA] 인도네시아-EU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9.25.	[구리] Grasberg 구리광산 사고(9.8) 여파로 LME 구리 가격 톤당 1만300불 돌파
콩고	9.22.	[광물] 코발트 수출금지 해제 및 연간 수출 쿼터제 전환 예정(10.16. 시행)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9.17.	[ESS] '신에너지 저장 시스템 대규모 건설 특별 행동계획(2025-2027년)' 발표
미국	9.11.	[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美 글렌파른과 알래스카 LNG 장기 인수 전제 예비 계약 체결
	9.15.	[원자력] 우라늄 전략적 비축량 확대 검토
	9.23.	[에너지] Trump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시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 촉구
캐나다	9.26.	[LNG] LNG 캐나다* 생산개시 기념식 개최 * 캐 역사상 최대(총 400억 불) 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 연 1,400만 톤 규모 LNG 생산
독일	9.15.	[에너지전환] 연방경제에너지부, 에너지 전환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10.1.	[핵융합] 연방내각, 핵융합 발전소 실행계획 채택 : 세계 최초 핵융합 발전소의 독일 내 건설을 위해 연구 지원,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8가지 핵심 조치 마련 및 약 17억 유로 투입 계획
루마니아	9.25.	[원자력] 국영원자력공사(SNN), 체르나보더 원전 사업 관련 대출 협정 체결 : 체르나보더 원전 1호기 설비개선사업 및 체르나보더 원전 3·4호기 프로젝트 회사(EnergioNuclear社) 배정 계획
호주	9.17.	[청정연료] 정부, 호주 내 청정액체연료 생산에 11억 호불 투자 발표
	9.18.	[온실가스] 정부,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추진 정책 발표 :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62~70% 감축
베트남	9.22.	[LNG] 하띵(Ha Tinh)성 인민위원회, 봉양 LNG 저장고 프로젝트 투자 승인
UAE	9.17.	[석유가스] UAE 국영석유기업(ADNOC) 자회사 XRG, 호주 2위 석유가스 기업 Santos 인수 제안 철회 발표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 2025년 예산조정법안(OBBBA)과 경제안보 :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을 중심으로	최용호
	현안	중동 핵심 해협(호르무즈, باب엘만데브, 수에즈 운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유아름
	연구동향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임산호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5호 (2025.8.14.)	분석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유아름
	현안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최용호
	연구동향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25-16호 (2025.8.26.)	분석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엔비디아 AI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임산호
25-17호 (2025.9. 12.)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의 함의	이재원
	현안	한일·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황지현
	연구동향	「3자 협력(한·미·일)을 통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김단비
25-18호 (2025. 9. 26.)	분석	주요국(일본-미국, EU-미국) 무역협상 공동성명 결과 분석	임산호
	현안	주요국(EU, 영국, 캐나다, 일본) 디지털 규제와 미국의 통상 대응	유아름
	연구동향	「기술혁신이 조선업 역량의 핵심인 이유」	김수연
25-19호 (2025. 10. 17.)	분석	중국의 ‘내권식(內卷式) 경쟁’ 억제 정책: 중국 내 과잉경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황지현
	현안	미·중 AI 인프라 투자 현황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이재원
	연구동향	미국 신홍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 보고서 분석	최용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